



휴가철 진도·여수·영광 등 전남 해수욕장 해파리 쏘임 신고 28건 고수온에 개체 증가...안전요원·장비 배치하고 입장 통제 등 비상

본격 휴가철을 맞은 전남 해안 일대에 해파리가 출현하면서 피해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전남 지역 어민들 또한 해파리가 그물을 찢거나 물고기를 공격하는 등 어업에 악영향을 미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올여름 전남 지역 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 쏘였다는 신고가 총 28건 접수됐다.

지난달 20일 여수시 오전동 모사금해수욕장에서 해파리 쏘임 신고가 접수된 것을 시작으로 진도 21건, 여수 6건, 영광 1건 등 신고가 잇따랐다.

진도군 고군면 가계해수욕장에서 지난달 31일 하루에만 20건의 신고가 접수돼 당일 수영객 입장을 일시 통제하고 해파리주의 현수막을 걸기도 했다.

휴가철 바닷가로 여행을 계획한 지역민도 불안해하고 있다.

광주에 거주하는 김예은(여·32)씨는 "이번 주말에 가족끼리 해수욕장으로 휴가 가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해파리가 나온다니 걱정이"라며 "어린 아이와 함께 피서를 가려 했는데 혹시라도 해수욕장이 폐쇄되거나 아이가 해파리에 쏘이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여름철 전남 해안에 주로 출몰하는 해파리는 노무라입깃해파리로, 크기가 최대 1m로 크고 독성이 강한 개체만 출현해도 여러 명이 피해를 볼 수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지난 5월 전남 지역 해안에 보름달물해파리 주의보(주의 단계)를 내린데 이어, 지난달 22일엔 전남 전체 해역에 노무라입깃해파리 주의보(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보름달물해파리는 100㎡ 당 성체 5개체 이상 발견될 때, 노무라입깃해파리는 100㎡당 1개체 이상 발견될 때

주의보가 내려진다.

노무라입깃해파리가 출현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동중국해에서 발생해 해류를 따라 한반도 연안으로 흘러들어온 것으로 분석된다.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중국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영양분이 풍부해지고, 지구온난화로 수온이 따뜻해지면서 해파리 개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남 해안의 경우 동해안처럼 해파리가 고밀도로 출현한 상황은 아니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전남 해안은 동해안 일대와 달리 대형 해파리가 해수욕장 인근까지 내려오고 있지는 않아 피서객들에게 큰 위협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김택석 진도 가계해수욕장 안전총괄팀장은 "아침 저녁으로 그물망을 가지고 확인하고 있지만 해파리가 발견되지는 않고 있다"며 "해파리 쏘임 신고는 수영 금지선 인근 해초 사이에 숨어있던 새끼들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해파리 쏘임사고에 대비해 주요 해수욕장에 안전요원 300여명을 배치하고, 해파리 절단망과 흡입기 등 안전장비 4000여대를 마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한편 국민재난안전포털에 따르면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붉은 열룩과 제책 모양의 상처가 나타난다.

쏘인 부위에 술, 알콜 등 세척제를 뿌리면 해파리 독액의 방출을 증가시킬 수 있어 자제해야 하며, 식염수 등으로 세척한 후 테트라사이클린(Tetracycline) 계열의 연고를 발라주는 것이 안전하다. 통증이 심할 경우 열찜질 또는 냉찜질을 하면 완화시킬 수 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이런 날벼락이...광주 30대 낙뢰 맞아 병원 이송

심정지 상태 발견...맥박·호흡 회복

광주에서 낙뢰에 맞은 것으로 추정되는 30대 남성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5일 광주동부소방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께 광주시 동구 조선대 사범대학교 앞 벤치에서 A(30)씨가 낙뢰에 맞아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

됐다.

A씨는 맥박과 호흡은 회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50분부터 광주와 전남 13개 시·군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고 천둥·번개를 동반한 비가 쏟아졌다.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광주에는 40회, 전남에는 2373회의 낙뢰가 쳤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갑작스런 소나기에 바빠진 발걸음

폭염이 계속된 5일 정오께 광주시 북구 용봉동 지역에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져 시민들이 황급히 길을 지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새벽 3시에 28.5도...목포 역대급 '잠 못 드는 밤'

살인폭염에 열대야 당분간 계속
보성 어제 밤 최저기온 27.6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아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보성군의 밤 최저기온이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보성뿐 아니라 광주·전남 지역에 열대야가 15일 이상 이어지고 있어 밤까지 이어지는 '한증막 무더위'에 지역민들의 잠 못 드는 밤이 길어지고 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지난 4일 밤부터 5일 새벽까지 보성군의 밤 사이 최저기온이 27.6도를 기록해

지난 2010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로 가장 무더웠던 것으로 기록됐다고 5일 밝혔다.

목포는 5일 새벽 3시까지도 기온이 28.5도에 달했으나, 오전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해 기온이 떨어지면서 극값을 경신하지는 않았다.

이외에도 신안 가거도 28.1도, 해남 복일 27.8도, 광주 27.7도, 고흥 도양 27.6도 등 광주·전남 전역에서 밤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현상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당분간 북태평양고기압의 가장자리를 따라 고온다습한 남풍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면서 낮동안 오르는 기온이 떨어지지 못해 열대야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다.

광주지방기상청은 "6~7일 광주·전남의 낮 최고 기온이 32~35도까지 오르고, 밤에도 온도가 떨어

지지 않아 아침 최저기온도 24~26도에 분포할 것으로 보인다"며 "폭염특보도 이번주 내내 이어질 전망이다"고 내다봤다.

덥고 습한 날씨 때문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6일 광주와 전남 내륙에 5~60mm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7일에는 전남 동부에 5~40mm 소나기가 내리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기상청 관계자는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선 짧은 시간 강한 비가 내리겠으니 안전사고에 유의하고, 소나기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또 온열질환 사망...순천시 발일하던 90대 숨져

광양선 80대 탈진 치료도

순천에서 발일을 하던 9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5일 순천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0분께 순천시 별량면의 한 밭에서 일을 하던 90대 여성 A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구조 당시 A씨는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실종 신고되기 1시간여 전 가족과 "밭일을 하고 있다"고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령인 A씨가 무더운 날씨에 밭일을 하다 온열질환으로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같은 시각 광양시 광양읍의 한 전통시장에서는 노점상을 하던 80대 여성 B씨가 체온이 41.5도까지 오르면서 탈진해 쓰러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지방기상청은 "6~7일 광주·전남의 낮 최고 기온이 32~35도까지 오르고, 밤에도 온도가 떨어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곡성서 트랙터 추락 50대 사망

곡성에서 50대 남성이 농로에서 추락해 자신이 운전하던 트랙터에 깔려 숨졌다.

5일 곡성경찰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 30분께 곡성군 고달면의 한 농로에서 트랙터를 운전하던 A(57)씨가 1m 높이의 농로 아래로 추락했다.

A씨는 농로 아래서 트랙터에 깔린 채 발견됐으며, 구조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가족들이 새벽 5시 30분께 농사일을 하겠다며 집을 나간 A씨가 돌아오지 않는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발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트랙터에 혼자 탑승해 운전을 하다 단독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대인 기자 kdi@

경찰청 | 금융감독원 | 생명보험협회 | 손해보험협회

허위 입원하고 보험금
편취해서 여행 다니는
위 조작 군

보험료 상승의 주범 보험금 깎아먹는 기생충이 되지마세요!

가짜환자도 보험사기
공범인 걸 모르는
나 한심 여사

환자를 유인해 크게 한탕
노리는 보험금 편취 조직
사기꾼 브로커